

寒洲 性理學에 있어서 ‘主宰性’ 重視와 그 意義

이형성*

【 차례 】

1. 머리말
2. 理의 주재성
3. 心の 주재성
4. 주재성 중시에 대한 의의
5. 맺음말

【 국문초록 】

조선의 주자학은 16세기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 18세기 예론(禮論)·인물성동이론(人物性同異論) 등을 통해 심화 발전되었다. 이후 학자들은 주자학에 대한 치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이전 선현들의 학문을 반성하면서 자신들의 철학적 체계를 확립한다.

한주(寒洲) 이진상(李震相)은 19세기에 영남 성주(星州)에 줄곧 살며 주자학(朱子學)을 면밀히 탐구하고 향촌사회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며 많은 후학을 양성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학자들 가운데 3대가로 꼽기도 하고 또한 조선 수많은 성리학자 가운데 6대가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그가 처한 시기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의 격동기여서, 학자들이라면 국가의 위기를 자각하고 양민덕치(養民德治)를 근간으로 하는 내수(內修)를 통해 내부적인 모순을 극복하고 인심을 결집시켜 서양과 일본의 도전을 물리치고자 척사위정(斥邪衛正)을 전개하려고 하였다. 그 역시 이러한 시대적 정황 속에서 정신적 이념을 보다 확고하게 확립하려는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리기심성론에서 리(理)와 심(心)을 중시하는 경향에서 학문을 체계화시켰다.

본래 이진상은 사승(師承) 관계 없이 『성리대전(性理大全)』과 제현(諸賢)의 문집을 두루 비교·고찰, 그리고 변증을 통해 자신의 성리설을 구축하였다. 특히, 그는 성

* 동국대학교.

리설을 구축함에 있어 리(理)와 기(氣)의 '서로 섞이지 않음(不相雜)'과 '서로 떨어지지 않음(不相離)'에 따른 이간(離看)과 합간(合看)이라는 방법론을 토대로 하면서도 이를 더 세분화하여 수간(豎看)·횡간(橫看)·도간(倒看)과 순추(順推)·역추(逆推)라는 학문적 방법론을 정립하였다. 그는 이러한 학문방법론을 근간으로 선유들의 논쟁을 검토 하면서 주희(朱熹)의 사상 체계가 정합적으로 짜여져 있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주희의 초년설(初年說)과 만년설(晩年說)을 세밀히 구분·연구하였다. 그리하여 이진상은 주희의 정설이 만년의 리 중시적 성리사상에 있다고 하고서, 이를 기반으로 리기론에서 리와 심성론에서의 심을 주재성 차원에서 일치시키며 강조한다. 이러한 주재성 증시는 19세기 격변기 속에서 약화된 공권력을 강화시키고 개인의 주재적 함양을 통한 명분과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주제어 이진상, 리, 기, 심, 리기론, 심성론, 심즉리, 주재성

1. 머리말

사상은 시대를 떠나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시대와 항상 공존하고 있다. 사상가는 자신이 처한 시대를 냉철하게 인지하고 철학적·사회적 및 다양한 문제 등을 고민한다. 더욱이 그는 그러한 문제들을 주체적 사고와 치밀한 분석을 통해 타개하려고 하면서 자신의 사상을 구축한다.

조선의 성리사상 역시 시대의 변천에 따라 발전하였다. 즉 조선 초기의 성리학은 이해하고 답습하는 경향에 있었고, 이후에는 철학적 논쟁을 펼쳤는 바, 16세기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과 그리고 18세기 예론(禮論)·인물성동이론(人物性同異論) 등이 그것이다.¹⁾ 19세기 학자들은 선현들의 논쟁에 대

1) 조선의 유학자들은 주자학을 수용하여 논쟁을 통해 심화·발전하기에 이르렀으니, 晦齋 李彥迪(1491~1553)과 忘機堂 曹漢輔의 無極太極論辨, 退溪 李滉(1501~1570)과 高峯 奇大升(1527~1572)의 四端七情論辨, 牛溪 成渾(1535~1598)과 栗谷 李珥(1535~1585)의 人心道心論에 의한 사단칠정논변, 國喪과 사회의 제도를 명분과 질서 차원

한 치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자신들의 성리사상을 확립한다.

본 논문은 한주(寒洲) 이진상(李震相 : 1818~1886)의 성리사상에서 주재성 증시와 그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이진상이 처한 19세기는 삼정(三政)이 문란하여 백성이 피폐한 상태, 서구 열강과 일본 제국주의의 도전, 그리고 서학(西學)의 세력이 확장함에 따라 경계하고 배척하는 시기였다. 한마디로 말해 조선은 내우외환(內憂外患)의 격동기에 있었다. 이때 지식인들은 전통 체제의 붕괴에 직면한 상태였으므로 전통적 가치를 수호하려는 의지로서 '위정척사(衛正斥邪)' 운동을 주장하였다.

이진상은 내우외환 속에서 영남 성주(星州)에 줄곧 살며 학문을 면밀히 탐구하여 방대한 저술²⁾을 남긴 당대 대표적 학자이다. 이진상은 본래 사승(師承)을 통해 성리설을 탐구한 것이 아니라, 일찍이 『성리대전(性理大全)』과 제현(諸賢)의 문집³⁾을 두루 비교·고찰, 그리고 변증을 통해 자신의 독자적 이론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런 배경에는 스승의 학문에 대한 답습보다는 자득의 철학을 강조한 그의 숙부 이원조(李源祚 : 1792~1871)의 영향이 지대하였다.⁴⁾ 특히, 이진상은 성리설을 구축하는 데 있어 리(理)와 기(氣)의 '서로 섞이지 않음(不相雜)'과 '서로 떨어지지 않음(不相離)'에 따른 이간(離看)과 합간(合看)이라는 방법론을 그 기저에 두면서도 이를 더 세분화하여⁵⁾

에서 예학적으로 전개한 예론, 韓元震과 李柬의 인물성동이론 등이 바로 그것이다.

- 2) 李震相에 저술에 관하여 학계에서는 총 85책이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논자가 고찰한 바에 의하면, 『寒洲集』 22책, 『理學綜要』 10책, 『四禮輯要』 9책, 『畝忠錄』 2책, 『春秋集傳』 10책, 『春秋翼傳』 3책, 『千古心衡』 2책, 『直字心訣』 1책, 『易學管窺』 4책, 『求志錄』 22책, 『辨志錄』 4책 등으로 총 89책이다. 주요논저 저술연도에 관한 것은 이하 분류표를 참조.
- 3) 이진상이 48세 때 완성하고 생을 마칠 무렵인 68세에 교감한 『四禮輯要』를 살펴보면, 자신이 본 서책을 열거하였다. 그는 중국의 서책 91권과 국내의 서책 84권으로 총 175권을 두루 참고·인용하여 자신의 학문에 대한 편력을 보여주었다. 『寒洲全書』 貳, 『四禮輯要』, 382쪽~384쪽 참조.
- 4) 『凝窩全集』 一, 卷11, 『集古錄』, 212쪽 참조. 『凝窩全集』은 驪江出版社 영인본(1986년)을 저본으로 하였다. 이하 동일.

수간(豎看)·횡간(橫看)·도간(倒看)과 순추(順推)·역추(逆推)라는 학문적 방법론을 정립하였다.⁶⁾ 그는 이러한 학문방법론을 근간으로 선유들의 논쟁을 검토하면서도 그 논쟁의 근원을 탐구하기 위해 주돈이(周敦頤: 1017~1073)의 「태극도설(太極圖說)」과 주희(朱熹: 1130~1200)의 「태극도설해(太極圖說解)」를 면밀하게 탐구한다. 더욱이 그는 주희의 사상 체계가 정합적으로 짜여져 있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주희의 초년설(初年說)과 만년설(晩年說)을 세밀히 구분·연구하여, 주희의 정설이 만년의 리 증시적 성리사상에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자신의 철학체계를 구축한다. 그 연구결과가 바로 61세에 마무리지은 『리학종요(理學綜要)』이다.⁷⁾

이진상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조선의 6대 성리학자로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과 울곡(栗谷) 이이(李珣: 1536~1584)와 같이 리기이원론자(理氣二元論者)로,⁸⁾ 극도의 주리파(主理派)로서 '심즉리(心卽理)'를 주장한 것으로,⁹⁾ 또는 '주리파의 거두(巨頭)'¹⁰⁾로 평가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주자성리학의 주리론의 대표적 철학자로 조선 봉건통치제도의 이론적 대변자이자, 유물론적 철학조류를 반대한 철학가라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

-
- 5) 李炯性, 「李震相의 性理學의 方法論에 관한 考察」, 『韓國思想과 文化』 제6집, 한국사상문화학회, 1999년 12월.
 - 6) 宋贊植, 「朝鮮朝末 主理派의 認識論理 - 寒洲 李震相의 思想을 中心으로 -」, 『동방학지』 제18집, 연세대학교 1978년.
 - 7) 조선 후기에 이르면, 몇몇 성리학자들은 성리학에 대한 문제의식을 朱熹(1130~1200)의 성리사상을 初年說과 晩年說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는데 그 대표적 저술로는 宋時烈에서 시작하여 韓元震(1682~1751)에 이르러 완성된 『朱子言論同異考』를 들 수 있다. 이진상은 한원진의 『주자언론동이고』에 대한 불완전함을 자각하고 주희의 언설을 정밀히 시기별로 분석하여 『理學綜要』를 저술하였다.
 - 8) 玄相允, 『朝鮮儒學史』(현음사, 1982), 66쪽과 361쪽 참조.
 - 9) 高橋亨, 「李朝儒學史に於ける 主理派主氣派の發達」, 『朝鮮支那文化の研究』(京城帝國大學法文學會第二部論叢, 1929), 234~235쪽; 다카하시 도루 지음·이형성 편역, 『다카하시 도루의 조선유학사』(예문서원, 2001), 215~217쪽 참조.
 - 10) 襄宗鎬, 『韓國儒學史』(연세대학교 출판부, 1974), 170쪽.

다.11)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그의 전 사상에 대한 연구가 어느 한 편에 치우친 것이다. 사실 그의 방대한 저술을 살펴보면, 그의 사상은 매우 광범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고찰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12)

따라서 논자는 이진상의 성리사상 가운데 주재성에 중심을 두고 고찰하고자 한다. 사실 이진상은 자신의 성리사상을 주희의 만년정론을 토대로 '리가 발한다'(理發)는 '리의 능동성(能動性)'을 구축하고 있는데, 논자는 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함에 있어 리(理)와 심(心)의 주재성이 그의 성리학의 토대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먼저 리와 심의 주재성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그 주재성에 대한 사회적 측면에서 의의를 간략히 논할 것이다.

2. 理의 주재성

성리학에서 리는 형이상(形而上)의 존재로서 모든 사물을 낳는 근본이고, 기는 형이하(形而下)의 존재로서 사물을 낳는 재료이다. 리는 원리로서 존재 원리·통제원리·도덕원리이고, 기는 음양과 오행을 나타내는 말로서 항상 유행·변화하고 있는 현상 및 현상적 존재의 재료를 가리킨다. 즉 성리학은 리·기 개념과 그 관계를 가지고 우주와 인생의 문제 그리고 인간 사회의 질서 등을 설명하려는 학문이다. 그런데 리와 기는 '서로 분리되지 않는 상태(不相離)'와 '서로 혼잡되지 않는 상태(不相雜)'라는 관계로 설명된다. 다시

- 11) 『조선철학사』(도서출판 광주, 1988), 267~269쪽 참조.
정성철, 『조선철학사』(좋은책, 1988), 186~194쪽 참조.
주홍성·이홍순·주칠성 지음, 김문용·이홍용 옮김, 『한국철학사상사』(예문서원, 1993), 311~313쪽 참조.
- 12) 최근 박사학위논문으로 李相夏의 「寒洲 李震相 性理說의 입론 근거 연구」(고려대학교 대학원, 2003)와 李宗雨의 「寒洲學派와 良齋學派의 心性論爭 研究」(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4) 등은 李震相의 性理思想을 다양한 각도에서 고찰하는 데 참고가 된다 하겠다.

말하면 전자는 현상적 측면에서 보는 것(在物上看)으로서, 이 때 리와 기는 '하나'로 인식되고, 후자는 원리적 측면에서 보는 것(在理上看)으로서, 이 때 리와 기는 '둘'로 인식된다. 그리하여 리와 기의 관계는 하나이면서 둘이 되고 둘이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¹³⁾ 이것은 리와 기가 일체적 존재이면서 별개의 존재, 별개의 존재이면서 일체적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는 논리이다. 이러한 논리적 체계에서 성리학을 고찰하다 보면 다양한 특징이 엿보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리는 정의(情意)·계탁(計度)·조작(造作)도 없으며 깨끗하고 공활(空闊)한 세계로 형적이 없는 반면, 기는 응결하고 조작하여 사물을 생성하는 특징을 가진다.¹⁴⁾ 이 리를 능연(能然)·필연(必然)·당연(當然)·자연(自然) 등의 뜻으로 구분하는 경향도 있지만,¹⁵⁾ 리는 '소이연의 이유'와 '소당연의 법칙'¹⁶⁾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조선의 학자들은 리와 기의 기본적 개념을 가지고 성리사상을 전개하면서 서로 차이를 보이며 학문적 발전을 가져왔다. 19세기 학술활동을 전개한 학자들 가운데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 1792~1868)·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 1798~1879)·이진상 등은 리와 기의 관계를 리존기비(理尊氣卑)·리주기객(理主氣客)·리주기복(理主氣僕)·리주기자(理主氣資)·리수기

13) 『朱子語類』上, 卷5, 「性理2·性情心意等名義」〈砥錄〉, 182쪽 “性猶太極也, 心猶陰陽也. 太極只在陰陽之中, 非能離陰陽也. 然至論太極, 自是太極: 陰陽自是陰陽. 惟性與心亦然. 所謂一而二, 二而一也.” 참조.

14) 『朱子語類』上, 卷1, 「理氣上·太極天地上」〈側錄〉, 148쪽, “蓋氣則能凝結造作, 理却無情意, 無計度, 無造作. (……) 若理則只是个淨潔空闊底世界無形迹, 他却不會造作. 氣則能醞釀凝聚生物也.” 참조.

15) 『朱子大全』中, 卷57, 「答陳安卿」, 358쪽, “理有能然有必然有當然有自然處, 皆須兼之, 方於理字訓義爲備否.”

16) 『大學或問』, 8쪽, “至於天下之物, 則必各有所以然之故, 與其所當然之則, 所謂理也.” 『大學或問』은 보경문화사 영인본(1986년)을 저본으로 하였다. 이하 동일.

역(理帥氣役)·리명기수명(理命氣受命) 등의 이론을 전개하였다.¹⁷⁾ 특히 이들은 성리학에 대한 자신의 독자적 이론체계를 구축하여 당시 3대가로 지칭될 정도였다.

이진상은 리기론(理氣論)에서 주희와 이황을 계승하고 그들의 성리학 체계를 보완 내지 발전시켜 나갔지만, 리기론이 『태극도설』에 부합지 않는 것은 잘못된 학문이라고 한다.¹⁸⁾ 리와 기의 기본성격을 주희의 설명방식에 따르면 “리란 것은 생멸하지도 않으며 처음과 끝이 없고, 기는 생멸이 있으며 처음과 끝이 있는 것이다”¹⁹⁾ “기는 보기 쉬우나 리는 밝히기 어렵다”²⁰⁾ “리가 유행함에 반드시 그 기를 타니, 기는 가히 볼 수 있으나 리는 보기 어렵다”²¹⁾ “기라는 것은 자취가 있어 가히 볼 수 있으며 밝히기 쉽다”²²⁾ “기란 것은 굴신(屈伸)하고 변화하며 승강(升降)하고 비양(飛揚)하여 생사(生死)가 있으며 형체와 방소(方所)가 있고, 이 리가 타는 그릇이 된다”²³⁾고 하였다. 즉 리는 경험할 수 없는 존재이며 기는 경험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것이다. 더욱이 이진상은 리는 무위(無爲)이고 기는 유위(有爲)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무위(無爲)란 ‘발할 것(所發)’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그 작위(作爲)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유위(有爲)란 스스로 ‘발할 수 있음(能發)’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그 작위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²⁴⁾

17) 尹絲淳, 『한국유학사상론』, 열음사, 1992(중보 1쇄), 210~211쪽 참조.

18) 『寒洲全書(4)』, 『辨志錄』, 卷11, 『太極圖節義』, 『後說』, 424쪽, “論理氣, 而不合於太極圖者, 皆倒學也.”

19) 『寒洲全書』 壹, 『寒洲集』, 卷11, 『答金聖汝』, 257쪽, “理也者, 不生不滅, 無始無終者也. 氣也者, 有生有滅, 有始有終者也.”

20) 『寒洲全書』 壹, 『寒洲集』, 卷32, 『四七經緯說(戊寅)』, 683쪽, “氣易見, 而理難明.”

21) 『寒洲全書』 貳, 『理學綜要』, 卷1, 『天道(理之大原)第一下』, 40쪽, “理之流行, 必乘其氣, 氣可見, 而理明.”

22) 『寒洲全書』 貳, 『理學綜要』, 卷1, 『心(理之主宰)第四下』, 112쪽, “蓋氣也者, 有迹可見, 而理明者也.”

23) 『寒洲全書』 壹, 『寒洲集』, 卷19, 『答郭鳴遠疑問(贊疑錄 庚午)』, 422쪽, “氣也者, 屈伸變化, 升降飛揚, 有生有死, 有形有方, 爲此理乘載之器者也.”

라고 한다. 리의 '무위'란 다만 작위가 없다는 것으로서, 리는 기의 운동(作爲)의 근거이면서 기의 운동을 통해 발현되는 것(所發)이다. 기의 '유위'란 다만 작위가 있다는 것으로서, 기가 리에 근거하지 않고도 스스로 '발현할 수 있다(能發)'는 뜻이 아니다. 리는 정 의(情意)와 조작(造作)이 없으나 그 묘용(妙用)은 실로 현실계에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²⁵⁾ 리의 '무위'는 아무것도 하움이 없는 '무위'가 아니라 만물의 근본이 되는 '하움이 없으면서 하움이 있는 존재'인 것이다. 기의 '유위'는 자신의 작위를 통해 리의 명령을 시행하는 것이다.

특히 성리학에서 리에 대하여 '소이연(所以然)'과 '소당연(所當然)'의 이중적으로 설명을 가하고 있는데, 이진상은 이를 삼중적으로 구분하여 '소이연'·'소당연'·'소능연(所能然)' 등을 말하고 있으나 이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²⁶⁾ 즉 리는 하나의 존재이지만, 원리계에서 현실계의 전개과정을 '소이연'→'소당연'→'소능연'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는 이를 기초로 하여, 리는 죽은 물건이 아니라 '활물(活物)'이라고 강조한다.²⁷⁾ 그리하여 리와 기의 선후 문제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리선기후의 입장을 가지고 있고, 리의 동정에 있어서는 주돈이의 「태극도설」과 정자(程子)의 “동정은 음양의 근본이다”²⁸⁾를 중심으로 하여, 주희의 “리에 동정이 있기 때문에 기에 동정이 있

24) 『寒洲全書』 壹, 『寒洲集』, 卷7, 「答沈禾犀文(庚申)」〈別紙〉, 175쪽, “先輩之論, 以爲理無爲而氣有爲. 無爲者, 非謂無所發也, 言其無作爲也. 有爲者, 非謂自能發也, 言其有作爲也.”

25) 『寒洲全書』 壹, 『寒洲集』, 卷16, 「答李器汝」〈別紙〉, 369쪽, “無爲而爲, 言其無情意無造作, 而妙用實能顯行也, 理自如此, 更安有所由而爲之乎?”

26) 『寒洲全書』 貳, 『理學綜要』, 卷1, 「天道(理之大原)第一上」, 11쪽, “太極, 無聲無臭, 而實有能動能靜之妙. 若果有形, 則局於形, 而靜而無動, 動而無靜矣. 夫是理也, 至無而至有, 至虛而至實, 莫之爲而爲, 莫之致而至. 先有箇所以然, 而達之於所當然, 既有箇所當然, 而達之於所能然.”

27) 『寒洲全書』 壹, 『寒洲集』, 卷19, 「答郭鳴遠」〈別紙(大學疑義)〉, 432쪽, “理之爲活物, 以其爲動靜之主也; 氣之有作用, 以其爲動靜之資也. 理本無形, 存乎其中, 氣之行處, 卽理之行底.” 참조.

다”²⁹⁾는 이론을 보다 더 명확하게 입증하면서, 리(태극)의 동정이 기(음양)를 창출하는 근본임을 강조한다.³⁰⁾

주지하다시피, 리와 기는 개념이 서로 다른데, 이진상은 “주재(主宰)는 리이고 작용(作用)은 기이다”³¹⁾고 하여, 리의 주재성을 강조한다. 이진상은 주재와 작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말한다.

작용은 조작(造作)과 운용(運用)이니 인위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이고, 주재는 주장(主張)과 재제(宰制)이니 천정(天定 : 하늘이 정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다. 작용은 기에 있고 주재는 리에 있으니 서로 혼동할 수 없다.³²⁾

작용은 ‘조작(造作)’의 ‘작(作)’과 ‘운용(運用)’의 ‘용(用)’의 합성어이고, 주재는 ‘주장(主張)’의 ‘주(主)’와 ‘재제(宰制)’의 ‘재(宰)’의 합성어이다. 작용은 일을 꾸미고 만들며 움직여 사용하는 것, 곧 인위적인 것에 반해, 주재는 어떤 일이든지 주장하고 재제하는 것인데 이는 ‘하늘이 정한 것’으로 자연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진상에게 있어서 주재와 작용의 구도는, 주재-자연-리, 작용-인위-기이다. 그는 리는 주재자이고 기는 작용자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리는 앎(知 : 智)이 있고 기는 앎이 없기 때문에, 리는 주재할 수 있지만 기는 주재할 수 없다. 기는 작위가 있고 리는 작위가 없기(하는 것이 없지만 하는

28) 『二程集』, 『河南程氏粹言』, 卷2, 「天地篇」 1227쪽, “子曰：動靜者，陰陽之本也。”；『寒洲全書』 貳, 『理學綜要』, 卷1, 「天道(理之大原) 第一上」, 12쪽 참조. 『二程集』은 漢京文化事業 有限公司印行 활자본(1983년)을 저본으로 하였다. 이하 동일.

29) 『朱子大全』 中, 卷56, 「答鄭子上」, 333쪽, “理有動靜，故氣有動靜。若理無動靜，則氣何自而有動靜乎?”

30) 『寒洲全書』 壹, 『寒洲集』, 卷9, 「答李謹休(戊午)」〈別紙〉, 203쪽, “太極之有動靜，二氣生出之本也.”

31) 『寒洲全書』 壹, 『寒洲集』, 卷27, 「答崔純夫」, 594쪽, “主宰是理，作用是氣.”

32) 『寒洲集』, 卷39, 「主宰圖說」〈附主宰說考〉, 21-15쪽, “作用者，造作運用出於人爲者也；主宰者，主張宰制出於天定者也。作用在氣，主宰在理，有不可相混.”

것은 바로 無爲이다) 때문에, 기는 작용할 수 있지만 리는 작용할 수 없다.³³⁾

리는 선천적으로 알 수 있는 앎이 있기 때문에 주재할 수 있고, 기는 작위가 있기 때문에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진상에게 있어서 주재자로서의 리와 작용자로서의 기의 위상이 명확히 구분된다. 그런데 이진상은 '주(主)'와 '재(宰)'를 합하여 하나로 보기도 하고, 구분하여 둘로 보기도 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재(主宰)'를 전언(專言)하면 '주(主)'가 곧 '재(宰)'이고 '재(宰)'가 곧 '주(主)'이다. '주재'를 분언(分言)하면, 고요함에 '체(體)'가 서는 것을 '주'라고 하니 인주(人主)가 팔짱을 낀 채로 하는 것이 없는 것에 해당되고, 움직임에 '용(用)'이 행하는 것을 '재'라고 하니 재상(宰相)이 여러 일을 재단(裁斷)하는 것에 해당된다.³⁴⁾

이진상은 '주재'를 하나로 보기도 하고, '주'와 '재'로 분리해 보기도 하였다. '주재'를 오로지 말하는 경우, '주'와 '재'는 동일한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주'만을 말하여도 주재가 되고, '재'만을 말하여도 주재가 된다는 것이다.³⁵⁾ '주재'를 구분하여 말하는 경우, '주'는 인주(人主)의 '주'로서 고요할 때 '체'가 확립됨을 말하고, '재'는 '재상(宰相)'의 '재'와 같이 움직일 때 '용'이 행하는 것을 말한다.

33) 『寒洲全書』貳, 『理學綜要』, 卷6, 「心(理之主宰)第四上」, 87쪽, “理有知(智), 而氣無知, 故理能主宰, 而氣不能主宰” 氣有爲, 而理無爲(莫之爲而爲, 便是無爲), 故氣能作用, 理不能作用.”

34) 『寒洲全書』壹, 『寒洲集』, 卷30, 「書西厓柳先生主宰說後」, 651쪽, “專言主宰, 則主便是宰, 宰便是主. 而分言主宰, 則體立於靜者, 謂之主, 如人主之垂拱無爲, 是也; 用行乎動者, 謂之宰, 如宰相之裁斷庶務, 是也.”

35) 徐敬德은 '宰'만을 가지고 '주재'의 의미를 제시하였다. 『花潭集』卷2, 「理氣說」, 306쪽, “氣外無理, 理者氣之宰也. 所謂宰, 非自外來而宰之, 指其氣之用事, 能不失所以然之正者, 謂之宰.” 참조.

이진상은 앞에서 언급한 리의 주재 의미를 리일분수론(理一分殊論)과 연관시켜 설명한다. 주지하다시피, 리일분수란 '리'는 본래 '하나'(一)이나 그 '분'은 '다름'(殊)을 말한다. '리가 하나다'는 것은 형이상적 본체(리)의 통일성을 말하는 것이고, '분이 다르다'는 것은 현상적 세계의 다양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진상은 '리가 하나다'라는 면에서의 주재성 그리고 '분이 다르다'라는 면에서의 주재성을 서로 연관시켜 다양하게 설명한다.

리일상(理一上)에 나아가 말하면, 태극은 동정의 신묘함을 포함하여 모든 변화의 주재가 되는 것이 이것이다. 성명의 리는 모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오니, 「탕고(湯誥)」의 '강충(降衷)'³⁶⁾의 제(帝)가 이것이다(所以然). 분수상(分殊上)에 나아가 말하면, 태극이 움직일 수도 있고 고요할 수도 있어 리를 주장(主張)하고 기를 재제(宰制)하니, 진체(眞體)는 자연스럽고 묘용(妙用)은 천연하니 『주역』의 '묘물(妙物)³⁷⁾의 신(神)'이 이것이다(所能然). 리일상에 나아가 분수를 보는 것이 있으니, 태극은 본래 네 가지 덕을 구비하여 원(元)은 '생(生)'을 주장하고 목(木)을 재제하며 형(亨)은 '장(長)'을 주장하고 화(火)를 재제하며 이(利)는 '성(成)'을 주장하고 금(金)을 재제하며 정(貞)은 '고(固)'을 주장하고 수(水)를 재제한다. 원형(元亨)은 통합하여 건(健)이 되어 양(陽)을 주재하고 이정(利貞)은 통합하여 순(順)이 되어 음(陰)을 재제하니, 이것은 신(神)의 일이다(所當然). 분수상에서 리일을 보는 것이 있으니, 하나의 리를 주장하여 모든 변화(萬化)를 재제하는데, 적연하여 하는 것이 없는 듯하나 실상은 하는 것이 있으니, 주자의 이른바 '심이 있을 때'³⁸⁾로서, 제(帝)의 일이다(自然必然).³⁹⁾

36) 이 인용문은 『書經』의 말로 위대한 상제가 천하의 모든 백성에게 '中' 즉 中和에서 발현되지 未發의 中을 내려주어서 모든 백성들은 그것을 그대로 따라(所以然的으로) 떳떳한 본성을 소유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書經』 卷4, 「商書」〈湯誥〉, 155쪽, “惟上帝降衷于下民, 若有恒性.”).

37) 『周易』 卷24, 「說卦傳」, 640쪽, “神也者, 妙萬物而爲言者也.”

38) '마음이 있을 때'란 매마른 나무가 살고자 하는 것이다(『朱子語類』 上, 卷1, 「理氣上·太極天地」〈備錄〉, 148쪽, “萬物生長, 是天地無心時; 枯槁欲生, 是天地有心時”) 참조.

39) 『寒洲全書』 壹, 『寒洲集』, 卷34, 「主宰圖說(丙辰)」, 718쪽~719쪽, “主宰之妙, 有就理一上說, 太極涵動靜之妙, 而爲萬化之主宰者, 是也. 性命之理, 都由此出, 湯誥降衷之

‘리가 하나다’라는 소이연(所以然)으로서의 주재성은 모든 변화의 주재가 되는 것이고, ‘분이 다르다’라는 소능연(所能然)으로서의 주재성은 리를 주장하고 기를 재제하는 것으로, 만물을 신묘하게 하는 신묘성을 말한다. 그리고 ‘리일’에서 ‘분수’를 보는 측면에서의 소당연적 주재성은 태극이 네 가지 덕을 구비하고 있는데, ‘리일’의 태극이 ‘분수’로서의 원·형·이·정을 주장하고 오행(목·화·토·금·수)을 재제하는 것을 말한다. ‘분수’에서 ‘리일’을 보는 측면에서의 자연·필연적 주재성은 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존재처럼 보이거나 사실 모든 것을 주재하고 있음을 말한다. 이진상은 ‘리일’과 ‘분수’에서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리일’과 ‘분수’의 유기적 관계에서 주재성을 전개한 바, ① ‘리일’은 소이연의 측면에서 주재성을 전개하는 것이고, ② ‘분수’는 소능연의 측면에서 주재성을 말하는 것이고, ③ ‘리일’에서 ‘분수’를 보는 측면은 소당연의 주재성을 말하는 것이고, ④ ‘분수’에서 ‘리일’을 보는 측면은 자연·필연의 주재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진상은 이러한 리의 주재성을 주장하면서, 특히 리(理)가 ‘주(主)’가 되고 기(氣)가 ‘자(資)’가 된다는 ‘리주기자론(理主氣資論)’을 전개하고,⁴⁰⁾ 그리고 조선 성리학에서 논쟁이 되었던 ‘발현(發)’의 문제를 주재성과 연관시켜 “발자리발지자기(發者理發之者氣)”를 전개하기도 한다. 전자는 리와 기의 주

帝, 是已(所以然). 有就分殊上說, 太極會動會靜, 主乎理而宰其氣, 眞體自然, 而妙用粲然, 大傳妙物之神, 是已(所能然). 有就理一上見得分殊者, 太極本具四德, 元主生而宰木, 亨主長而宰火, 利主成而宰金, 貞主固而宰水, 元亨統爲健, 而主宰乎陽: 利貞統爲順, 而主宰乎陰, 此神之爲也(所當然). 有就分殊上見得理一者, 主一理以宰萬化, 寂若無爲, 而實則有爲, 卽朱子所謂有心時, 帝之爲也(自然必然).”

40) 李震相의 理主氣資論은 李象靖(1711~1781)과 丁時翰(1625~1707)의 이론을 계승하는 면이 있다.

『大山全書』二, 卷39, 126쪽, “天地之間, 只有理氣之動靜. 理也者, 所主以動靜之妙也, 氣也者, 所資以動靜之具也.” 『大山全書』는 驪江出版社 영인본(1990년)을 저본으로 하였다.

『愚潭集』, 卷9, 「壬午錄」, 371쪽, “以理氣妙合之中, 理常爲主, 氣常爲輔.” 『愚潭集』은 민족문화추진회 영인본(『韓國文集叢刊』 126, 1994년)을 저본으로 하였다.

종관계를 밝혀, 리의 '주재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후자는 리와 기의 발현의 측면에서 리의 기능적 측면에서 '주재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진상은 '리주기자론'에 대하여 "리와 기의 묘함은 (……) 움직이면 함께 움직이고, 고요하면 함께 고요하다. 그러나 리는 '주재'가 되고 기는 '자료'가 된다"⁴¹⁾고 하였다. 이는 리와 기가 함께 동정을 하지만 리는 '주재'가 되고 기는 '자료'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리가 주재가 된다'는 것은 리는 주재자이고 근본이라는 말이며, '기가 자료가 된다'는 것은 기는 자료이고 도구라는 말이다.⁴²⁾ 더욱이 그는 "리는 천명의 주재요, 기는 천명의 자료이다"⁴³⁾라고도 하고, "리는 기의 주재이고, 기는 리의 자구(資具)이다"⁴⁴⁾라고도 말한다. 그는 이러한 맥락에서 기가 리의 '자구'라는 것은 기가 리의 '탈 것(所乘)'임을 의미하고, 리가 기의 '주재'라는 것은 리가 기의 '근본'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는 리주기자론을 사람과 말에 비유하여 설명하는 바, 사람이 말을 타고 출입할 때에, 출입이라는 운동의 주체는 분명 말이다. 그러나 말의 운동은 사람의 주재를 받는 것이고, 말은 사람이 타고 출입하는 수단인 것이다. 그러므로 출입(운동)의 주재자는 사람이요, 말은 사람의 출입을 도와주는 '자구'인 것이다.⁴⁵⁾ 이진상이 리의 주재성을 강조하는 것은 곧 리가 활물(活物)임을 강조하는 것이다.⁴⁶⁾ 리는 기를 주재하여 운동하게 하나, 운동의 실제

41) 『寒洲全書』 壹, 『寒洲集』, 卷16, 「答李器汝」, 368쪽, "理氣之妙, …… 動則俱動, 靜則俱靜. 然理爲主而氣爲資."

42) 『寒洲全書』 壹, 『寒洲集』, 卷7, 「與尹士善別紙」, 188쪽, "理爲主本, 而氣爲資具."

43) 『寒洲全書』 貳, 『理學綜要』, 卷3, 「命(理之賦予)第二」〈命說〉, 45쪽, "朱子曰: '太極之有動靜, 乃天命之流行.' 蓋理既生氣, 乘是氣而流行, 氣以成形, 因其形而賦予. 理者, 命之主也, 氣者, 命之資也." 참조.

44) 『寒洲全書』 壹, 『寒洲集』, 卷25, 「答崔肅仲(正基 ○乙亥)」, 539쪽, "夫理者, 氣之主宰也; 氣者, 理之資具也."

45) 『寒洲全書』 貳, 『理學綜要』, 卷1, 「天道(理之大原)」 第一上, 15쪽, "太極猶人, 陰陽猶馬. 理之乘氣而動靜, 猶人之乘馬而出入. 氣之一動一靜, 而理亦與之一動一靜: 馬之一出一入, 而人亦與之一出一入. 此猶爲從氣上看理之論. 而其實, 則人爲出入之主, 而馬爲出入之資, 只可言人之出入矣: 理爲動靜之主, 而氣爲動靜之資, 只可言理之動靜矣." 참조.

주체는 기이다. 그런데 기의 운동은 리의 주재에 의한 것이므로, 리가 운동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또한 리는 운동의 주재자요, 항상 기는 리의 주재를 받아 운동하므로, 주재자인 리를 언급하면 자구인 기는 항상 그 가운데 저절로 수반하는 것이다.⁴⁷⁾ 리는 주재자로서 기를 타고 동정을 주재하는 것인데, 그것을 기발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 때문에 주재자는 리이고, 기는 자구라는 것이다.⁴⁸⁾

이진상은 위의 논리를 기초로 “발자리 발지자기(發者理 發之者氣)”라는 명제를 제시하고, 이것은 나의 평생 동안의 주요 견해라고 강조하였다.⁴⁹⁾ ‘발자리’란 ‘발현의 주재자는 리’라는 말이고 ‘발지자기’란 ‘발현의 자구는 기’라는 말이다.⁵⁰⁾

이이는 일찍이 “발자기야 소이발자리야(發者氣也 所以發者理也)”⁵¹⁾라고 하기도 하고, 나아가 ‘발자기야(發者氣也)’에 ‘지(之)’ 글자를 추가하여 “발지자(發之者)’는 기이고 ‘소이발자(所以發者)’는 리이다. 기가 아니면 발현할 수 없고 리가 아니면 발현할 것이 없다”⁵²⁾고 하였다. 이이가 말하는 ‘발자기야

46) 『寒洲全書』 壹, 『寒洲集』, 卷19, 「答郭鳴遠」〈別紙(大學疑義)〉, 432쪽, “理之爲活物, 以其爲動靜之主也: 氣之有作用, 以其爲動靜之資也. 理本無形, 存乎其中, 氣之行處, 卽理之行底.”

47) 『寒洲全書』 壹, 『寒洲集』, 卷25, 「答崔庸仲(丙子)」, 540쪽, “理爲之主, 氣爲之資, 單說其主, 而資具自隨.”

48) 『寒洲全書』 壹, 『寒洲集』, 卷34, 「讀黃勉齋答李公晦書(丙辰)」, 723쪽, “理乘氣而發也, 理爲主而氣爲資, 固有主與資之別矣.”

49) 『寒洲全書』 壹, 『寒洲集』, 卷19, 「答郭鳴遠疑問」, 425쪽, “發者理也, 發之者氣也, 乃鄙人平生主見.”

50) 『寒洲全書』 壹, 『寒洲集』, 卷7, 「答沈禾岸文(庚申)」〈別紙〉, 172쪽, “竊意謂之發者, 則發之主也, 發之者, 則發之資也.”

51) 『栗谷全書』 一, 卷10, 「答成浩原」, 198쪽, “大抵, 未發則性也, 已發則情也, 發而計較商量則意也. 心爲性情意之主, 故未發已發, 及其計較, 皆可謂之心也. 發者氣也, 所以發者理也.”

52) 『栗谷全書』 一, 卷10, 「答成浩原」, 198쪽, “大抵, 發之者氣也, 所以發者理也. 非氣則不能發, 非理則無所發.”

소이발자리야(發者氣也 所以發者理也)'와 '발지자기야 소이발자리야(發之者氣也 所以發者理也)'의 구절을 해석하면, 전자는 “발하는 것은 기이고 발하는 소이는 리이다”⁵³⁾고 하고, 후자는 “발하는 것은 기이고 발하는 까닭은 리이다”⁵⁴⁾로 하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해석이다. 그렇다면 '발자기야'에 대한 해석, 그리고 '지' 글자를 추가한 '발지자기야'의 해석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진상은 '발자(發者)'에 대하여 '발할 자라'로 해석하고, 이것이 있고 난 다음에 발지자(發之者)가 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고칠 수 없는 올바른 원리라고 주장한다.⁵⁵⁾ '지(之)'는 작용하는 곳(作用處), 즉 기의 작용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⁵⁶⁾ 따라서 '발현하는 것은 기'인 것이다. 요컨대, 이진상에게 있어서 '주재하는 것은 리'이고 '작용하는 것은 기'임이 분명하다.⁵⁷⁾ 그가 '발자리(發者理)'라고 한 것은 '발하는 주재자는 리'라는 뜻이고, '발지자기(發之者氣)'라고 한 것은 '발하는 작용을 하는 것은 기'라는 뜻이다.⁵⁸⁾ 이것은 이진상이 이이의 기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성리설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이는 기가 운동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기발(氣發)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진상에 의하면, 이이와 같은 논리는 결국 주객을 전도시킨 것으로서, 결국 '도(道)를 어지럽히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라고 말한다.⁵⁹⁾ 그의 이이와 같이 주장하는

5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國譯 栗谷全書(Ⅲ)』(서울: 朝銀文化社, 1996), 46쪽·56쪽 참조.

54)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國譯 栗谷全書(V)』(서울: 朝銀文化社, 1996), 83쪽 참조.

55) 『寒洲全書』 五, 『求志錄』, 卷2, 「四七辨」, 414쪽, “按: 有發者(發者라)而後, 方有發之者, 不易之正理也.”

56) 『寒洲全書』 壹, 『寒洲集』, 卷7, 「與柳東林(己未)」〈別紙〉, 168쪽, “順之逆之, 助之拚之, 皆在於氣之作用, 爲機括而發之者, 果非氣乎?”

57) 『寒洲全書』 壹, 『寒洲集』, 卷19, 「答郭鳴遠疑問」, 425쪽, “太一將分, 理生氣, 衆萬交運, 理乘氣. 主宰在理, 作用在氣.” 참조.

58) 『寒洲集』, 卷40, 「花峽法語」, 21-61쪽, “金丈曰: 發者理, 以主宰者言: 發之者氣, 以作用言否? 曰然.”

59) 『寒洲全書』 壹, 『寒洲集』, 卷8, 「與尹士善(己未)」, 180쪽, “理本主也, 可以主理而

저변에는 리가 발현할 때 그 주재성에 초점이 있는 것이다.

이진상이 리의 주재성을 강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본체계에서 리가 발현되지 않았을 때(未發)에는 기가 리를 엄폐하지 않게 하여 리가 혼연하도록 하는 것이고, 현상계에서 이미 발현할 때(已發)에는 리가 기에 엄폐되지 않고 그대로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3. 心의 주재성

심(心)은 신체의 한 부분인 심장을 지칭하는 것이나, 또한 심은 기능적 측면에서 인식할 수 있는 면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윤리학적 측면에서 본래 타고난 양심과 같은 면도 함께 지닌다. 이와 같은 심을 성리학에서는 리(태극)·기(음양)와 연결시켜 이론이 전개되는데,⁶⁰⁾ 주희는 “심은 사람의 몸을 주재하는 것이다. (심은) 하나이고 두 개가 아니며, 주체가 되고 객체가 되지 않으며, 사물을 명령하는 것이요 사물에게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다”⁶¹⁾고 정의한다. 이 같은 정의는 바로 심이 절대성이고 또한 절대주체이기 때문에 객체가 되지 않고 다른 것에 명령받지도 않는 것이다.

이진상은 주희의 학설을 계승하고 있으나, 『리학종요』 권6에서 선진 유가 경전에 언급된 상제심(上帝心)·천심(天心)·천지의 심을 거론하며 심을 ‘리의 주재’로 설명한다.⁶²⁾ 그리하여 심을 ‘리의 주재’로 보지 않고 ‘기’로 여기

言：而氣本資也，烏可主氣而言乎？纔主氣便亂道。”

60) 『朱子語類』上, 卷5, 「性理2·性情心意等名義」〈砥錄〉, 182쪽, “性猶太極也, 心猶陰陽也. 太極只在陰陽之中, 非能離陰陽也. 然至論太極, 自是太極: 陰陽自是陰陽. 惟性與心亦然. 所謂一而二, 二而一也.” 참조.

61) 『朱子大全』中, 卷67, 「觀心說」, 605쪽, “心者, 人之所以主乎身者也, 一而不二者也, 爲主而不爲客者也, 命物而不命於物者也.”

62) 『理學綜要』, 卷6·7·8의 편명을 보면, 卷6은 「心(理之主宰)第四上」, 卷7은 「心(理之主宰)第四中」, 卷8은 「心(理之主宰)第四下」이다. 李震相은 心에 대하여 시종 理의

는 경향을 철저히 비판한다.⁶³⁾ 그는 심을 기로 여길 수 없다는 논리를 세우기 위해, 중국 송나라 소옹(邵雍: 1011~1077)의 “심은 태극이 된다”⁶⁴⁾는 것과 연관시키면서, “심은 사람의 태극이다”⁶⁵⁾ “심은 태극이 사람에게 존재하는 것이다”⁶⁶⁾ “심은 여러 이치가 모여진 곳이면서 사람의 태극이다”⁶⁷⁾ “심의 본체는 태극이 사람에게 내재한 것이다”⁶⁸⁾고 한다. 이와 같이 그는 심을 태극과 연관시켜 혼연한 전체라고 여긴다.⁶⁹⁾ 이러한 전체로서의 심을 이진상은 ‘본체(本體)’·‘형체(形體)’·‘묘용(妙用)’·‘객용(客用)’으로 구분하는데⁷⁰⁾ ‘본체와 묘용’은 ‘성과 정’의 관계가 되고, ‘형체와 객용’은 ‘몸과 욕망’의 관계가 된다. 더욱이 그는 심을 ‘혈육의 심(血肉之心)’, ‘인의의 심(仁義之心)’, ‘정상의 심(精爽之心)’, ‘지각의 심(知覺之心)’으로 구분하는 바, 첫 번째는 오장 가운데 하나인 심장으로 보고, 두 번째 인·의의 심은 리로서의 심의 순수한 본성을 말하고, 세 번째 정상(精爽)의 심은 기의 영명성(靈明性)을 말하는 것이고, 네 번째 지각(知覺)의 심은 리와 기를 합쳐져 외부 사물을 인식하는 것을 가리킨다.⁷¹⁾ 이 같은 심의 분석은 논리적이면서도 명료하

主宰性으로 보고 있다.

- 63) 『寒洲全書』 貳, 『理學綜要』, 卷6, 「心(理之主宰)第四上」, 77쪽, “按: 世儒多以心爲氣, 而觀於上帝心, 天心之語, 尤可見心爲主宰之理.”
- 64) 『性理大全』, 卷11, 『皇極經世書(5)』, 「觀物外篇(上)」, 220쪽, “心爲太極.”
- 65) 『寒洲全書』 貳, 『理學綜要』, 卷6, 「心(理之主宰)第四上」, 86쪽, “心者, 人之太極也.”
- 66) 『寒洲全書』 壹, 『寒洲集』, 卷34, 「心易動靜圖(并紋 ○庚午)」, 720쪽, “心者, 太極之在人者也.”
- 67) 『寒洲全書』 貳, 『理學綜要』, 卷6, 「心(理之主宰)第四上」, 84쪽, “心是衆理之總會, 而人之太極也.”
- 68) 『寒洲全書』 貳, 『理學綜要』, 卷6, 「心(理之主宰)第四上」, 88쪽, “心之本體, 卽太極之在人者也.”
- 69) 『寒洲全書』 貳, 『理學綜要』, 卷6, 「心(理之主宰)第四上」, 94쪽, “心是渾然全體也.”
- 70) 『寒洲全書』 貳, 『理學綜要』, 卷8, 「心(理之主宰)第四下」, 127쪽, “仁義禮智, 純粹而至善者, 心之本體也; 圓外竅中, 虛明而正通者, 心之形體也; 四端七情, 感物而迷應者, 心之妙用也; 閑思雜慮, 循人欲而熾蕩者, 心之客用也.”
- 71) 『寒洲集』, 卷39, 「隨錄」, 21-33쪽, “血肉之心, 以質言: 仁義之心, 以理言: 精爽之心, 從氣言: 知覺之心, 兼理氣言. 各有攸主, 相須乃成.”

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진상은 위의 심에 대한 정의를 통해 심즉리설을 주장하는데, 특히 심의 주재성을 주장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그는 『주자어류(朱子語類)』의 “심은 진실로 주재의 뜻이다. 그러나 주재라는 것은 곧 리이다. 이 심을 벗어나 별도로 리가 있거나 리를 벗어나 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⁷²⁾고 하는 것을 자주 인용하여 심즉리설을 전개한다. 이는 오직 주희의 만년 정설을 따른 것이다.⁷³⁾ 그에 의하면, 심은 주재하는 것이고 주재하는 것은 리이니 리 밖에 별도로 심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⁷⁴⁾ 이와 같은 논지에서 이진상은 심과 리를 일치시켜 심즉리설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진상은 양명학(陽明學)의 심즉리설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양명이 가리키는 천리는 진실로 천리의 발원처(發見處)를 본 점이 있으나, 다만 그가 말하는 천리는 바로 정신(精神)과 기백(氣魄), 진음(眞陰)과 진양(眞陽)이라는 것으로서 해당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기를 리로 간주하는 것이다. 리와 기가 섞여 구별이 없다면 심즉리가 되는 설도 또한 기를 리로 여기는 견해에서 나온 것이다.⁷⁵⁾

72) 『朱子語類』上, 「理氣(上)·太極天地(上)」〈變孫錄〉, 148쪽, “心固是主宰底意, 然所謂主宰者, 卽是理也, 不是心外別有箇理, 理外別有箇心.”

73) 『寒洲全書』壹, 『寒洲集』, 卷33, 「答張舜華(癸未)」〈別紙〉, 520쪽, “孟子仁人心章, 朱子說曰: 仁者, 理卽是心, 心卽是理. 答鄭子上書曰: 儒釋之異, 正爲吾以心與理爲一, 而彼以心與理爲二. 陳北溪已未錄曰: 心者, 天理在人之全體. 林變孫丁巳以後錄曰: 心固是主宰底, 所謂主宰者, 卽此理也. 不是心外別有箇理, 理外別有心. 如是則最晚定論, 固主乎心卽理者, 明矣.”

74) 『寒洲全書』壹, 『寒洲集』, 卷18, 「答李聖養」, 403쪽, “若吾儒之所謂心, 則便曰: 心固是主宰底, 而主宰底, 卽此理也, 不是理外別有箇心.”: 『寒洲全書』壹, 『寒洲集』, 卷32, 「心卽理說」, 677쪽, “又曰: 心固是主宰底, 而而所謂主宰者, 卽此理也.”

75) 『寒洲全書』貳, 『理學綜要』, 卷6, 「心(理之主宰)第四上」, 91쪽, “陽明之指作天理者, 固有見於天理發見之處, 而但其所謂天理者, 乃以精神氣魄眞陰眞陽者, 當之. 此乃認氣而爲理也. 理氣雜而無別, 則其爲心卽理之說者, 亦出於認氣爲理之見也.”

이는 본래 왕수인(王守仁 : 1472~1528)이 리와 기를 이원적으로 구별하지 않고 기를 리로 간주한 것이다. 더욱이 이진상은 왕수인이 “리는 기의 조리이고 기는 리의 운용이 된다”⁷⁶⁾고 여겼기 때문에, 왕수인에게 있어서 천리가 발현한 것도 기가 발현한 것으로 간주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진상은 분명 천리와 기를 분리하여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 천리는 앞서 언급하였던 주재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진상이 주장하는 심즉리는 성리학의 이론적 명제 가운데 인간의 본성과 하늘의 이치가 같다는 ‘성즉리’에 어긋난다. 그리하여 당시 여러 선유들로부터 비판을 받지만, 그는 심성론에서 심과 성을 구별하면서 심즉리설을 도출한다. 심의 본체는 성이나, 이 양자는 애초에 각각 분리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순수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성이라 하고, 광명하여 어둡지 않은 것을 심이라 하는 것으로, 그 실상은 하나이다.⁷⁷⁾ 그런데 이진상은 심과 성을 구별하여, “심의 주재는 본래 리이고, 심의 리는 성이나, 성은 주재로 말할 수 없다. 대개 성이란 오행 가운데 각각 하나의 리이고 주재는 태극 본체의 묘이다”⁷⁸⁾고 하고, “심은 주재의 리이고, 성은 발출(發出)의 리이니, 리는 하나일 따름이다. 이것은 혼연(渾然)한 것이고 저것은 찬연(燦然)한 것이다”⁷⁹⁾라고 한다. 주재로서의 심과 발출로서의 성이 하나의 리이므로, 한 존재의 두 양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를 통한 그의 심즉리설은 태극의 혼연성과 심의 혼연성을 일치시키고 그 혼연성을 바로 주재적 측면에서 정의한

76) 『王陽明全集』上, 卷2, 語錄(2), 『傳習錄』中, 「答陸原靜」, 62쪽, “精一之精, 以理言, 精神之精, 以氣言. 理者, 氣之條理: 氣者, 理之運用. 無條理, 則不能運用: 無運用, 則亦無以見其所謂條理者矣.”

77) 『寒洲全書』四, 『求志錄』, 卷3, 「孟子筭義」, 85쪽, “性只是心之體, 心性元非各有其初. 而以純粹至善者言, 則便指性之初: 以光明不昧者言, 則便指心之初, 其實一也.”

78) 『寒洲全書』貳, 『理學綜要』, 卷6, 「心(心之主宰)第四上」, 86쪽, “心之主宰, 固是理, 心之理固是性, 而性不可以主宰言. 蓋性者五行各一之理, 而主宰者太極本體之妙也.”

79) 『寒洲集』, 卷39, 「主宰圖說」〈附主宰說考〉, 21-17쪽, “以心則爲主宰之理, 以性則爲發出之理, 理則一而已, 此以渾然者言也, 彼以燦然者言也.”

것이다. 즉 이진상의 심즉리설은 혼연적 측면, 다시 말하면 전체적 측면에서 주재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측면은 이진상이 상제심과 천심의 관념을 ‘인간의 심’에 대입하여, 심의 주재성을 강조한 것과 관계가 있다. 성리학에서 상제나 천(天)의 관념은 리(태극)로 대체되어, 세상의 모든 일이 이 리에 의해 주재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바,⁸⁰⁾ 이진상은 심이 한 몸의 주재자이므로 심은 당연히 리라고 보고 심즉리설을 주장한 것이다.

다음 심의 주재성으로 이진상의 ‘심통성정론(心統性情論)’을 살펴보자. 이는 심·성·정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바, ‘심통성정’에서 ‘통’은 본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겸한다·포괄한다”⁸¹⁾이고, 두 번째는 “주재한다”⁸²⁾이다. 이진상에 의하면, 심통성정에서 ‘통’을 ‘주재한다’고 해석하는 것 역시 ‘통’이 ‘겸한다’라는 구조에서 성립한다고 한다.⁸³⁾ 이는 심의 포괄성과 주재성을 구분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심이 성을 주재한다고 하는 측면과 심이 정을 주재한다고 하는 측면을 살펴보자.

고요함은 성이니 충막(沖漠)하여 조짐이 없지만 지각이 어둡지 않아 심이 고요함을 주재할 수 있는 것이고, 움직임은 정이니 발출(發出)함이 동일하지 않지만 본원은 항상 일정하니 심이 움직임을 주재할 수 있는 것이다.⁸⁴⁾

80) 李相益, 「畿湖性理學에 있어서의 理의 主宰 問題」, 『哲學』 제55집, 韓國哲學會, 1998 여름, 5쪽 참조.

81) 『朱子語類』上, 卷5, 「性理2·性情心意等名義」, 〈大雅錄〉, 183쪽, “心, 又是一箇包總性情底”: 『朱子語類』下, 卷98, 「張子之書」〈升卿錄〉, 1144쪽, “統猶兼也.” 참조.

82) 『朱子語類』下, 卷98, 「張子之書」〈賀孫錄〉, 1145쪽, “統是主宰.” 참조.

83) 『寒洲全書』貳, 『理學綜要』, 卷7, 「心(理之主宰)第四中」, 101쪽, “以其有兼包之實, 故所以有主宰之妙, 理一而已, 豈有兩樣理之疑乎?”; 『寒洲全書』壹, 『寒洲集』, 卷17, 「答金致受問目(戊寅)」, 394쪽, “統有二義. ……然而二義, 只是一事, 初非性情之外, 別有心以統之也.” 참조.

84) 『寒洲全書』五, 『求志錄』卷15, 『語類節義(一)』「性理」, 22쪽, “蓋靜者是性, 沖漠無朕, 而知覺不昧, 心能主宰乎靜: 動者是情, 發出不同, 而本原常定, 心能主宰乎動.”

심 의 두 측면인 성과 정을 살펴보면, 먼저 성은 내면적 고요함이기 때문에 사물이 이르지 않고 사려(思慮)가 싹트지 않아 혼연하면서 모두 도의(道義)가 구비된 상태이고, 정은 외면적 움직임이기 때문에 사물이 이르고 사려가 싹터 칠정(七情)이 서로 작용하면서도 각각 주장함이 있는 상태이다.⁸⁵⁾ 심이 성과 정을 주재하는 것은 바로 총막하고 조짐이 없는 성을 심의 허령한 지각이 고요함을 보존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현상적으로 발현하는 정이 일정하지 않지만 원리적으로는 심이 항상 일정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진상은 심·성·정의 관계에서 심의 주재성을 리일분수론으로 설명하고 또한 이를 리의 ‘소이연’·‘소능연’·‘소당연’·‘자연필연’ 등과 연결시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리일(理一)로 말하면(分殊가 그 가운데 존재한다), 심은 성과 정의 주재이어서, 인으로 사랑하고 예로 공순하고 의로 마땅하게 여기며 지로 분별하는 것이다(所以然). 분수(分殊)로 말하면(理一이 그 가운데 존재한다), 심의 체는 성인데, 성은 그것(심) 때문에 주장되고, 심의 용은 정인데, 정은 그것(심) 때문에 재제된다(所能然). 분수처에서 분수를 보면, 사덕(四德)이 서로 주장하고, 사단(四端)이 각각 재제하여, 중리(衆理)로써 만사(萬事)를 처리한다(所當然). 분수처에서 리일을 보면, 지(智)의 덕이 일심(一心)을 주장하여, 미발시에는 지각이 어둡지 아니하여 감응할 때에 지각이 (그것을) 분변하고, 이발시에는 지각이 묘하게 작용하여 감응할 때에 지각이 그것을 수렴하니, 이는 ‘일리(一理)로써 중리(衆理)를 묘하게 하는 것’이다(自然必然).⁸⁶⁾

85) 『朱子大全』 上, 卷32, 「答張欽夫」, 543쪽, “人之一身, 知覺運用, 莫非心之所爲, 則心者固所以主於身, 而無動靜漁默之間者也. 然方其靜也, 事物未至, 思慮未萌, 而一性渾然, 道義全具, 其所謂中, 是乃心之所以爲體, 而寂然不動者也. 及其動也, 事物交至, 思慮萌焉, 則七情迭用, 各有所主, 其所謂和, 是乃心之所以用, 感而遂通者也.” 참조.

86) 『寒洲全書』 壹, 『寒洲集』, 卷34, 「主宰圖說(丙辰)」, 719쪽, “言其理之一(分殊者在其中), 則心爲性情之主宰, 而以仁愛, 以禮恭, 以義宜, 以智別者也(所以然). 言其分之殊(理一者在其中), 則心之體是性, 而性爲之主焉, 心之用是情, 而情爲之宰焉(所能然). 於分殊處見分殊, 則四德迭主, 而四端各宰, 以衆理而處萬事(所當然). 於分殊處見理一, 則智之德主一心, 未發而知覺不昧, 纔感而知覺辨之: 已發而知覺妙之, 既應而知覺便收, 以

이진상은 심·성·정을 리일분수로 설명할 때, 리일을 심으로 여기고 분수를 성정으로 여긴다. '리일' 차원의 주재는 '소이연'을 말하는 것으로, 심이 '성·정'을 주재하여 인(仁)으로 사랑하고 예(禮)로 공경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 '분수'차원의 주재는 '소능연'을 말하는 것으로, 이 때는 '성'의 주재는 '주장'(임금이 신하를 명령하는 것과 같은 경우)으로, '정'의 주재는 '재제'(신하가 만사를 처리하는 것과 같은 경우)로 구분된다. 또한 '분수'처에서 '분수'를 주재하는 것은 '소당연'에 해당되는데, 그것은 사덕이 번갈아가면서 주장하고, 사단이 번갈아가면서 재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심에 구비된 중리가 만사를 마땅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분수'처에서 '리일'을 관찰한다면, 그것은 '자연'이고 '필연'으로서, '분수'는 '리일'이 자연적이고 필연적으로 그렇게 드러난 것이라는 말이다.

또한 그는 본체와 묘용의 상보적 관계에서 이심사심(以心使心 : 마음으로 마음을 부린다)을 말하기를, “성과 정 밖에 다시 심은 없다. 성과 정의 덕을 묘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심의 묘용으로 그 본체를 지존(持存)하고 심의 본체로 그 묘용을 마름질하고 헤아리는 것이다. 이것이 정자의 이른바 마음으로 마음을 부리는 것이다”⁸⁷⁾라고 한다. 즉, 순수한 감정인 묘용으로 천성적 본성을 보다 더 간직·확충하고 도덕적 순수의식의 주체(본성)로 하여금 감정이 사욕이나 물욕에 섞이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즉 마음으로 마음을 부린다는 것은, 바로 '성이 발출한다'는 것은 '성이 발하여 정이 된다'는 논리에 따라 인·의·예·지의 성이 정으로 발출한다는 것이고, '심이 주재한다'는 것은 성이 정으로 될 때 탁박한 기의 영향을 배제하여 중절(中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원리에서 보면, '마음으로 마음을 부

一理而妙衆理者也(自然必然).”

87) 『寒洲集』, 卷39, 「主宰圖說」〈附主宰說考〉, 21—14쪽~15쪽, “性情之外, 更無心. 而今曰妙性情之德者, 以心之妙用, 持存其本體: 以心之本體, 裁度其妙用. 程子所謂以心使心者也.”

린다는 것은 성의 본래성이 그대로 정으로 현현(顯現)할 수 있도록, 즉 현상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未發)나 이미 드러난 상태(已發)에서 심이 항상 성과 정을 주재하여 기가 리를 엄폐하지 못하도록 주재하는 것이다.

이진상의 심즉리설·심통성정론·이심사심론에서 심의 주재성을 강조한 것은 심에서 성과 정을 온전히 보존하여 인간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어 인간의 도덕적 실천활동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의 논의는 현실생활에서 윤리적 주재성을 배양하여 심의 주체적이고 능동적 수양을 강조함이라 하겠다.

4. 주재성 중시에 대한 의의

선진유학이나 성리학이 추구하는 학문적 목적은 도덕적 인격을 닦아(修己) 국가사회의 백성들을 점차 안정되게 다스리는(治人) 것이다. 향내적으로는 도덕적 인격을 닦아 인간의 본성을 체현하고(內聖) 향외적으로는 개인의 도덕성이 국가와 사회에까지 지향하는(外王) 것이다. 이는 개인윤리와 사회윤리가 분리할 수 없는 상보성(相補性)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는 “법적 제도로 인도하고 형벌로 질서를 바르게 하고자 한다면 백성들이 법을 모면하려고 할 뿐 부끄러운 줄을 모르게 된다. 덕(德)으로 인도하고 예(禮)로 질서를 바르게 유지하고자 한다면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알고 선의 방향으로 이르게 된다”⁸⁸⁾고 깨우쳤던 것이다.

성리학은 조선의 건국이념으로서 국가와 사회의 모든 제도와 문화에도 다각적으로 내재되어 유기적으로 발전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조선의 성리

88) 『論語』, 卷2, 「爲政」, 77쪽, “子曰：道之以政，齊之以刑，民免而無恥。道之以德，齊之以禮，有恥且格。”

학자들은 중국의 성리학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전개·심화시켰지만, 그들 학문의 궁극적 목표는 개인적으로는 도덕적 인격을 닦아 백성들을 다스려 국가와 사회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즉 조선 성리학자들의 학문적 방법은 서로 차이가 있어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서로 일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유학자는 개인의 도덕성을 기초로 하여 사회적으로 무한한 책임을 짊어진 학자들이었기에, “천지를 위하여 나의 마음을 세우고, 백성을 위하여 도를 세우고, 지나간 성인을 위하여 끊어진 학문을 계승하고 만세를 위하여 태평을 연다”⁸⁹⁾는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신이 깃들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이진상이 활동한 19세기는 세도정치에 의해 각종 제도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자, 민중들은 소외되고 도태되어 몰락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있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최제우(崔濟愚: 1824~1864)가 1860년 동학사상을 창도하는가 하면, 병인양요(1866)와 신미양요(1871년)를 통해 서양의 무력 침략이 있어, 조선은 국내외적으로 혼란스러웠다. 이리하여 근대적 개혁의 필요성을 느낀 개화의 지식인들은 국민들에게 세계정세를 알리고 근대문물에 대한 지식을 전파, 부국강병을 통해 세계무대에서 열강과 당당하게 맞서 보려 하였다. 하지만 개화파들은 일본세력을 동원하여 개화를 시도하였기 때문에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입장에서 근대화운동을 펼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은 군권(君權)이 약화되고 국가의 조직이나 제도가 올바르게 확립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진상은 자신의 성리사상을 구축하는 데 있어, ‘리’와 ‘기’를 ‘군(君)’과 ‘신(臣)’의 관계로 비유하여 설명한다.

89) 『近思錄』, 卷2, 129쪽, “爲天地立心, 爲生民立道, 爲去聖繼絕學, 爲萬世開太平” 『近思錄』은 保景文化社 영인본(『心經·近思錄』, 1986년)을 저본으로 하였다.

생각컨대 리가 무위(無爲)하고 기가 유위(有爲)한 것은 마치 임금의 팔을 드리고 말하면 신하는 그 말을 찬양(讚揚)하는 것과 같다. 임금의 도는 '무위'이나 복과 위엄을 만들 수 있으니 이는 '무위'의 '위(爲)'가 '유위'가 되는 것이다. 신하의 도는 '유위'이나 복과 위엄을 만들 수 없으니 이는 '유위'의 '위'가 '무위'가 되는 것이다. (...) 리가 과연 무위라면 능히 만화의 지도리가 될 수 없고, 기가 홀로 유위라면 반드시 리의 주재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⁹⁰⁾

이는 '리'와 '군'의 역할(無爲而爲)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리의 무위는 다만 형이하적인 작위가 없다는 것일 뿐, 복과 위엄을 만들 수 있는 것이며, 기의 유위는 형이하적 작위가 있다는 것일 뿐, 복과 위엄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임금의 '무위'는 목적과 같은 것이 아니고 신하를 명령하는 것이며, 신하의 '유위'는 스스로 구체적인 정사를 시행하는 것이나 그 실질은 임금의 명령에 의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조선말 전환기에는 군권(君權)이 신권(臣權)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약하여, 최고 권력자의 군권과 공권력 누수현상(漏水現象)으로 말미암아 상하 질서가 와해됨에 따라 공정한 명분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진상은 당시 임금을 리에 비유하며 리기론은 전개하였는데, 이는 리의 주재성에 근거하여 임금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리기론에서 '리'를 '군'에 비유한 것을 사회적인 입장에서 살펴보면, 군왕 개인에 대한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올바르게 확립되지 못한 상하 명분을 재정립하려는 것으로서, 상하의 명분질서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통수권자(統帥權者)의 주재적 역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 이면에는 공권력 강화의식이 싹트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90) 『寒洲全書』 五, 『辨志錄』, 卷2, 「四七辨」, 〈理無爲而氣有爲〉, 425쪽, “按: 理無爲而氣有爲, 如君垂拱而臣贊讓, 君道無爲而作福作威, 是無爲之爲, 爲有爲也. 臣道有爲, 而不敢作福作威, 是有爲之爲, 爲無爲也. …… 理果無爲, 則不能爲萬化之樞紐: 氣獨有爲, 則不必待一理之主宰.”

그러므로 이진상의 리기론은 시대의식과도 상당한 함수관계가 있는 바,⁹¹⁾ 그의 리의 주재적 중시 사고는 당시 전통적 가치체계가 붕괴되고 불안정한 위기적 현실사회에서 정명론적(正名論的) 질서를 확립하여, 세도정치에 의해 실추된 공권력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가치의식이 잠재하였다고 생각한다. 그가 '리'라는 도덕원리로서의 주재성 내지 절대성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도덕의 근본성격을 참으로 인식하고, 이를 현실사회에서 실현 내지 구현하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진상은 리의 공도(公道)가 현실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강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성리사상은 순수철학적 이론에 머물지 아니하고, 잘못된 사회제도를 개혁하려고 상당히 고심한 흔적을 보여주었다.⁹²⁾ 유형원(柳馨遠 : 1622~1673)의 정전제도나 이이의 십만양병술(十萬養兵術)에 대한 극찬은 그러한 일례를 방증한다 하겠다. 이진상이 당시 공권력 누수현상과 사회제도의 폐단을 극복하려고 한 것은 원칙(리)에 의한 공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야 한다는 신념에서 출발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⁹³⁾ 때문에 이진상은 현실에서 심의 기능적 주재성을 강조하는 사유방식을 표출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진상의 성리학에서 주재성 중시에 대한 의의는 당시 사회의 질서가 붕괴됨에 따라 원칙에 의한 공정한 법도가 필연적으로 확립되고 실현되도록 이론적으로 정립한 것에 있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인간의 사사로운 욕구와 생각(私欲·私意)을 올바르게 주재·극복·배제하여 참된 인간의 주체성 확립과 도덕사회의 완성이라는 목표를 추구한 것이었다고 하겠다.

91) 이는 畿湖에서 氣重視의인 사고를 토대로 하여 상대적으로 현실의 변화를 강조하려는 자세와 다르다고 생각한다.

92) 『寒洲全書』 貳, 『敬忠錄』, 「敬忠錄序」, 698쪽 참조.

93) 『寒洲全書』 壹, 『寒洲集』, 「擬陳時繁仍進敬忠錄疏」, 89쪽~95쪽 참조. 이러한 면은 李震相의 아들 李承熙가 계승하여 內修自強을 통해 本源·大則·大經·大務·大全으로 밝히고 있다(유준기, 『한국근대유교 개혁운동사』 152~167 참조).

5. 맺음말

19세기 영남에서 학술활동을 펼친 한주 이진상은 선유들이 논쟁하였던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주희의 사상을 시기별로 분류하면서 초년설과 만년설의 사상 체계가 정합적으로 짜여져 있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주자학의 본질이 주희의 만년설에 있다고 하여 이를 토대로 성리사상을 구축하였다. 그는 성리학을 구축하는 데 있어 수간(豎看)·횡간(橫看)·도간(倒看), 역추(逆推)·순추(順推)를 그 방법론으로 삼았다. 그는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선유들의 성리학설에 대한 비판과 반성적 학문태도를 취하면서, 어느 한쪽만의 주장을 탈피하여 주희의 만년설에 맞게 회통하려 하였다.

이진상은 리와 기가 본래 두 존재이나, 현상계(유행상)에서는 리와 기가 분리될 수 없다고 본다. 현상계에서의 리와 기의 관계는 '리주기자(理主氣資)'이다. 이는 리가 '주재(主)가 되고 기가 '자료(資)가 된다는 이론으로, 리와 기가 분리될 수 없는 묘합(妙合)의 관계론을 전개한 것이다. 이진상은 이를 토대로 '발할 것은 리이고, 발하는 것은 기이다'(發者理也 發之者氣也), '리가 기를 타고 발한다'(理乘氣而發)고 한다. 이는 주재자로서의 리가 발하는 것이고 그것을 자료하여 도와주는 것은 기의 작용이라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논리는 이황의 리기호발설(理氣互發說)과 이이의 기발리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을 종합지양하는 의미를 지닌다.⁹⁴⁾ 이진상은 궁극적으로 리발일로설(理發一路說)을 주장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리의 주재성을 확립하고 강조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이를 기초로 심의 주재성을 주장한다. 심의大本(大本)과 본체(本

94) 유행상에서의 리와 기의 묘합적 관계는 이황의 互發說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보다는 이이의 一途說(一路說)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하겠다.

體)로서의 주재성은 바로 리에 있다고 하여 심즉리설을 강력하게 주장하기에 이른다. 그는 이 같은 이론을 토대로 심을 기로 여기는 기호학과(畿湖學派)의 학문경향을 비판하고, 또한 양명학(陽明學)의 심즉리설도 심을 기로 보았다고 비판한다. 또한 심통성정론(心統性情論)에서도 심의 주재성을 강조한다. 나아가 그는 하나의 심을 이분적(二分的)으로 구분하여 전개되는 이심사심론(以心使心論)에서도 전자의 심(본체의 심, 道心)으로 후자의 심(利欲으로 나아가려는 비본래적 심, 人心)을 주재해야 한다는 이론을 전개하였다. 이진상이 인간에게 내재한 심의 주재성을 강조한 것은 성(性)의 표준적인 것보다는 인간의 능동적인 주체성으로서의 인극(人極)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진상의 성리사상은 단순히 철학적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리의 주재성 중시는 사회현실과 관련해서, 정명론적 관점에서 공적(公的)인 위계질서를 바로잡고, 가치의 본원을 밝혀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한다는 의의를 지니는 것이며, 이를 통해 당시의 여러 시폐(時弊)를 구제하려는 것이었다. 심의 주재성 역시 현실생활에서 자기의 본성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감정을 단속하여 인간의 윤리적이고 도덕적 존재로 발휘하도록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심의 주재성을 배양하여 심의 주체적이고 능동적 수양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이진상의 학문을 계승한 한주학파(寒洲學派)⁹⁵⁾는 당시 유치명(柳啟明: 1777~1861) 학파, 허전(許傳: 1797~1886) 계열의 허훈(許薰: 1836~

95) 寒洲 李震相의 門人을 헤아리면 당시 상당하였으나, 金炳浩가 편저한 『儒學淵源錄』(易經研究院, 1980, 443~448쪽)에는 130여 명을 거론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당시 대표적 문인으로는 旣字 郭鍾錫(1846~1919)·韓溪 李承熙(1847~1916)·后山 許愈(1833~1904)·晦堂 張錫英(1851~1929)·勿川 金鎮祐(1845~1907)·紫東 李正模(1848~1915)·弘齋 李斗勳(1856~1918)·膠字 尹靑夏(1846~1906) 등을 일컫는다. 이 8인을 일러 '洲門八賢'이라 불리운다.

1907), 전우(田愚: 1841~1922) 학파의 학맥과 뚜렷한 구분을 지으면서 독립된 학통을 열어갔다.⁹⁶⁾ 특히 한주학파는 도학적 기반 위에서 유교이념을 재조직하고 체계화하여 역사적 상황에 맞게 유교를 개혁하고,⁹⁷⁾ 나아가 근대 서양사상을 이해하고 수용하고자 하였다.⁹⁸⁾ 이는 이진상의 비판적이고 학구적인 학문경향이 그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의리론에서는 국내에서 수구적(守舊的)이고 경직된 태도를 벗어나, 대외적으로 국제사회에 호소하며 척사운동을 전개하는 진보성을 보였다. 이는 이진상이 체적(體的) 학문을 구축하였다면 그의 학문을 계승한 한주학파는 용적(用的) 현실세계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진상은 영남학파(嶺南學派)와 기호학파(畿湖學派)의 철학적 논쟁들을 계통적으로 서술하고 비평을 가하면서 주희의 리 중시적 차원(晚年定說)에서 절충·회통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리의 주재성'과 '심'의 주재성을 일치시켜 '인간 주체성의 근거(人極)'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리의 절대성과 주재성을 강조하여 당시 약화된 공권력을 강화시키고 나아가 현실생활 속에서 올바른 도리를 정립시키고자 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96) 李震相은 영남지역에서 李滉의 학문을 계승한 柳致明의 성리설에서 영향을 받으면서도 심의 주재성을 강조하여 柳致明 學派의 金興洛·金道和·柳必永의 성리사상과 뚜렷한 구분을 짓게 되었다.

97) 유준기, 『한국근대유교개혁운동사』(증보판, 아세아문화사, 1999년 참조).

98) 朴宗석의 학문을 계승한 李寅梓(1870~1929)는 『哲學攷辨』·『希臘三代哲學家學說』·『哲學論綱』 등을 저술하여 西洋哲學의 여러 학설을 세밀히 분석하여 유교의 입장과 절충하려고 하였다. 朴宗興, 『朴鍾鴻全集(V)』, 민음사, 1998년(증보판), 424~434쪽 참조; 琴章泰, 「韓末道學의 思想史的 照明」, 『道原柳承國博士華甲紀念論文集 東方思想論攷』, 道原柳承國博士華甲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종로서적, 1983년, 633쪽 참조; 金鍾錫, 「李寅梓의 사상과 역사적 의의: 서양철학 전래 초기 유학계의 동향에 관한 일고찰」, 『철학회지』 제17집, 영남대 철학과 연구실, 1992년 참조.

【참고문헌】

- 『性理大全』, 保景文化社, 1984.
- 『王陽明全集』(吳光·錢明·董平·姚延福이 編校) 上海古籍出版社出版, 1992년
- 『二程全書』, 保景文化社, 1986.
- 『二程集』,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印行, 中華民國 72.
- 『朱子大全』, 中和堂, 1986.
- 『朱子語類』, 中文出版社, 1970.
- 『通書』(『性理大全』), 保景文化社, 1983년.
- 『退溪全書』,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71.
- 『寒洲全書』, 亞細亞文化社, 1980.
- 『寒洲集』, 서울대학교 奎章閣 所藏本(Microfilm).
- 心山思想研究會 編, 『心山 金昌淑의 思想과 行動』,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6.
- 유준기, 『한국근대유교개혁운동사』(증보판), 아세아문화사, 1999.
- 尹絲淳, 『退溪哲學의 研究』,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0.
- 李相益, 『畿湖性理學研究』, 한울아카데미, 1998.
- 최봉익, 『조선철학사개요』, 한마당, 1989.
- 崔英成, 『韓國儒學思想史』(I ~ V), 아세아문화사, 1994~1997.
- 오하마 아끼라(大濱浩) 지음, 이형성 옮김, 『범주로 보는 주자학』(원제: 『朱子の哲學』), 예문서원, 1997.
- 琴章泰, 「退溪學派의 學問<21>-寒洲 李震相의 性理學과 心卽理說」, 『退溪學報』 제102집, 退溪學研究院, 1999.
- 金道基, 「吾東儒賢의 '心卽理說 論辨攷」, 『擇窩許普道先生停年紀念 韓國史學論叢』, 일조각, 1992.
- 宋贊植, 「寒洲 李震相先生의 學問과 思想」, 『淡水』 13, 1984.
-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근대 영남 유학의 유산: 寒洲學派』, 제13회 한국학연구원 기획학술발표회, 1999년 11월.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교육연구단, 『寒洲學派의 學派과 民族運動』, 제40회 동양학 학술회의(近代의 儒教學派과 民族運動 III), 2000년 8월.

Abstract

A Study on the Superintendence Character and the Significance in Neo-Confucian Philosophy of Lee Jin-sang

Lee, Hyung-Sung

The fundamental thought of Chosun Period can be said to be Neo-Confucianism — The Learning of Zhu Xi(朱熹). Many Confucianism in the Chosun Period made research into Neo-Confucianism and formulated their own philosophical theories. As their philosophical theories were so very established according to various points of view, Chosun's Neo-Confucianism tended to cause various arguments — the Theory of Four Beginning and Seven emotion(四端七情) among Lee Hwang(李滉), Ki Dea-seung(奇大升), Lee Yi(李珥) and Sung Hon(成渾) in the former term of Chosun, and the theory of Sameness or Difference between the natures of Man and Things(人物性同異論) between Lee Kan(李柬) and Han Won-jin(韓元震) in the latter Period.

This thesis is focused on the Superintendence Character of Neo-Confucianism raised by Lee Jin-sang(李震相: 1818~1886) of the 19th century, who was called one of the six Confucian Philosophers in the Chosun Dynasty. Although his Neo-Confucianism accepted Zhu Xi's and Lee Hwang's theories, it seems that he set up his own unique methodology. It consists of the concept of Su-kan(睇看), Hoeng kan(橫看), and Do-kan(倒看), as on the basis of Li-kan(離看) and Hap-kan(合看). His three Kan-methodology(看法) is specially unbiased by Sun-chu(順推) and Yeok-chu(逆推). After he re-examined Zhu Zi Xue(朱子學) in the methodology, he thought that Zhu Xi emphasized Superintendence Character of Li(理) in his later years. He systematized his philosophy as taking a serious view Li and coincided Li in the Theory of Liki(理氣) and Sim in the Theory of Simsung(心性). His philosophy made progress forward Sim-Geuk-Li(心卽理) in Superintendence Character. His theory was strengthening government power which is weak in the 19th. Besides

it was maintaining social order, controlling an individual rolr.

We can surely say that his Superintendence Character in Neo-Confucianism, accordingly, be evaluated high in the history of Korean philosophy.

Key Word

Lee Jin-sang, Li, Ki, Sim, Theory of Liki, Theory of Simsung, Sim-Geuk-Li, Superintendence Character